

[시장 · 경제동향]

.....

화장품산업의 전망과 동향

김 대 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4/4분기 화장품 시장 - 회복전망

화장품 산업은 소규모 설비를 이용하여 소량 다 품종의 정밀도가 높은 화학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밀화학에 속한다. 화장품은 제품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생산이며,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기호성이 강한 이미지 상품으

로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외국 브랜드 선호도가 높아 수입개방에 취약한 품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선행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월대비 경기선행지수가 감소하였으나 6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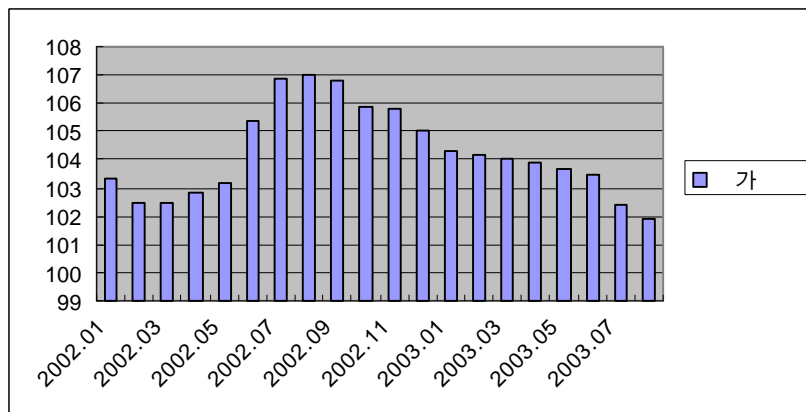


그림 1 화장품 생산자 물가지수(기준년도 2000년=100)

자료 : 한국은행

되었다(6월 1.1% 증가, 7월 0.4% 증가). 화장품은 소득탄력성이 비교적 큰 상품으로서 소득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비를 줄이기를 거부하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여 구매를 급격하게 억제하는 소비의 톱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 선행지수가 나타내는 것처럼 경기가 회복될 경우 화장품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화장품 생산자가 생산하여 출하하는 상품 및 기업용 서비스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화장품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감소 추세에 있다. 화장품 구입시 고려되는 사항으로 위에서 지적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화장품 가격의 하락 등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화장품시장의 4/분기 경기는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 화장품시장 동향

2002년 화장품의 생산실적은 3조 7천억원으로 각 유형별 생산실적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이 자료에 의하면 기초화장품(53.1%), 기능성화장품(8.4%), 메이크업(12.7%), 두발용(14.2%), 면도용(2.0%), 목욕용(2.1%), 눈화장용(3.7%), 방향용(1.1%), 어린이용(1.4%) 등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기초화장품의 꾸준한 증가는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스킨케어 중심의 시장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자외선차단제, 피부미백제, 주름개선제 외에 손상된 피부회복, 염증치료 등 의학적 효능이 강화된 제품, 남성용 기능성 제품, 발모제 등의 헤어케어나 슬리밍제품의 바디케어 제품 등이 개발되고 있다. 브랜드 면에서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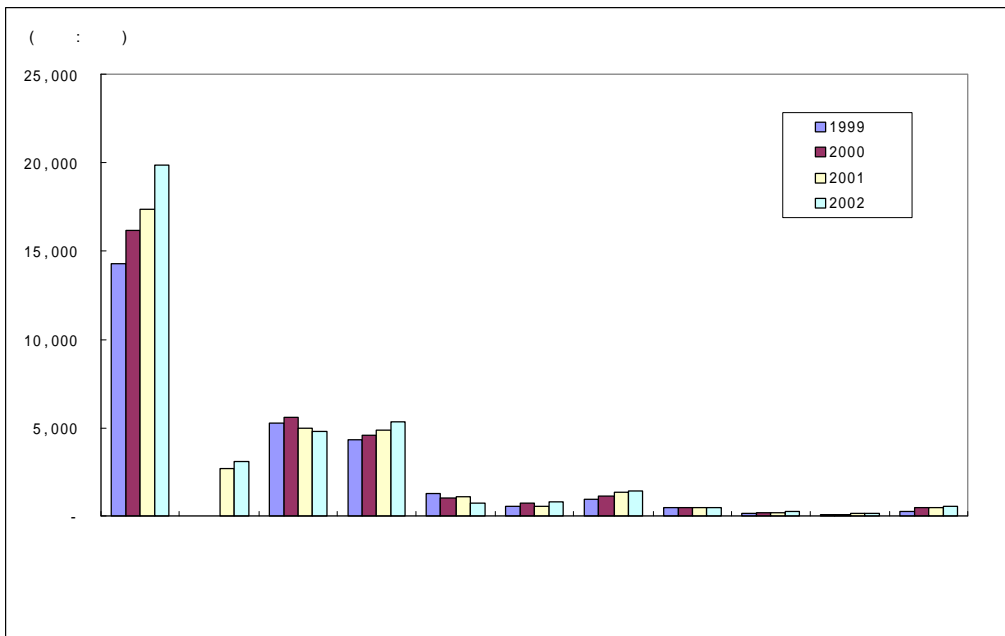


그림 2 유형별 화장품 생산실적 추이

자료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한 국내기업의 현실상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은 국내시장 방어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메이크업 제품류의 경우 파운데이션과 메이크업 베이스, 페이스 파우더 등 베이스 메이크업을 위한 제품류의 하락이 눈에 띄게 두드러져 전체적으로 3년 연속 생산실적이 하락하였다. 두발용품의 증가는 미용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3. 화장품 유통시장 동향

각 기업들은 여러 가지 유통경로 중 브랜드별로 가장 유리한 경로를 통하여 상품의 유통을 실시함으로써 판매경로의 통제와 영업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유통구조는 2003년

1/4분기를 기준으로 화장품전문점(29.5%), 구방관(18.8%), 백화점(16%), 직판(12.8%), 메스마켓(6.9%), 다단계(8.0%), 헤어살롱(4.0%)으로 다양한 유통경로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그림 3)을 보면 화장품전문점을 통한 공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방문판매(구방관, 직판, 다단계)를 통한 공급의 비율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슈퍼나 마트 그리고 헤어살롱을 통한 공급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화장품 업체들은 주로 화장품 전문매장 위주로 판매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외국회사들은 백화점 중심,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암웨이, 뉴스킨코리아로 대표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들의 다단계 판매전략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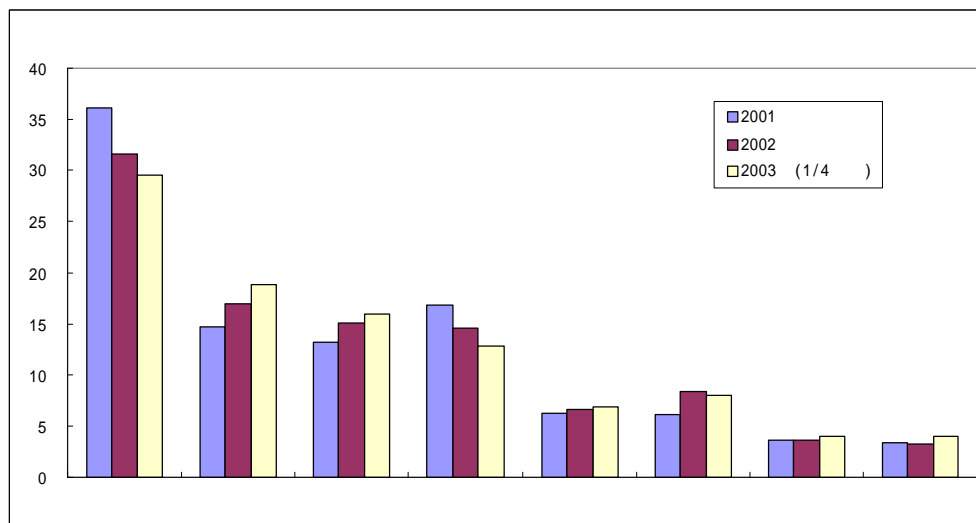


그림 2 유통경로별 화장품 시장 점유비 추이

자료 : 장업신문, 업계추정¹⁾

1) 인터넷 판매분은 각 유통별 판매금액에 합산, 점유비 독립 구분 안함

4. 화장품 원료시장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중 약 80%가 해외수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장품원료 총 수입액은 지난해 2002년 64,233,367달러로서 2001년 27,255,540달러에 비해 2.7배 증가하였다. 화장품 원료 수입품 중 수입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화장품의 경우 대부분의 원료 및 제품들이 특허 등의 방법을 통해 산업차원에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를 구입할 경우 완제품으로 수입

해야 하거나 고가의 기술 사용료 또는 원료 구입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물질의 개발과 효능검토는 초기단계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원료들이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국가적인 외화손 및 고유의 차별화된 제품개발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들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수입대체에 의한 외화의 국외 유출을 방지해 국가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고 기술장벽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기능성화장품 개발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원료사업 육성 기반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1 2002년 화장품원료 품목별 수입 실적순위(단위 달러)

순위	품목	용도	금 액(\$)
1	사이클로메치콘	모발조정제,피부연화제,용제	3,047,491.61
2	소듐 리우레스 설페이트	계면활성제,세정제,유화제	1,995,522.75
3	미네랄 워터	용제	1,190,065.64
4	판테놀	모발조정제	1,111,639.81
5	디메치콘	기포방지제,피부조정제	1,080,471.83
6	화이트류	-	912,158.53
7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산화방지제,피부교질화제	846,693.67
8	세틸아릴 알코올	유화안정제,불투명화제, 계면활성제,거품형성제,점증제	834,465.60
9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친	피부교질화제,계면활성제,유화제,현탁화제,비계면활성제	777,460.07
10	소듐 히아루로네이트	피부교질화제	759,890.38
11	디소스테아릴 말레이트	피부연화제	728,421.50
12	싸이크로덱스트린/레티놀	-	624,142.67
13	디메치콘 코폴리올	-	586,979.50
14	판테놀 에칠 에텔	모발조정제	511,546.20
15	헥실렌 글라이콜	방향제,용제	494,634.51
16	바이오사카라이드 검-1	피부교질화제	489,749.35
17	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	정전기방지제,모발조정제	471,936.12
18	소듐 메칠 코코일 타우레이트	계면활성제,세정제	452,744.35
19	라놀린	유화제,모발조정제,피부연화제,계면활성제,유화제	415,969.91
20	알킬 아크릴레이트 코폴리머 에멀전	-	411,010.96

자료 : 의약품 수출입협회

5. 결론

국내 화장품 산업은 신원료의 개발과 고기능을 갖춘 제품개발, 소비자 계층의 다양화, 유통구조의 변화 등으로 활발한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R&D 역량의 확보, 바이오기업이나 나노 기업 등과의 기술 제휴 등으로 응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화장품원료의 표준화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